coupang newsroom

[보도자료] “고물가 속 고객 장바구니 부담 낮춘다” 쿠팡, 연중 최대 규모 정육 할인전 350톤 물량 최대 64% 할인

2025. 3. 28.

- **총 350톤 역대급 규모 물량 확보 최대 64% 할인으로 장바구니 부담 완화 기대**
- **내달 13일까지 국내산·수입산 돼지고기·소고기 등 400여개 이상 상품 특가 판매**
- **대량 매입으로 내수 불황 어려움 겪는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판로 확보 기여**

2025. 03. 28. 서울 - 쿠팡이 연중 최대 규모의 정육 할인전을 내달 13일까지 진행한다. 사전 확보한 350여톤의 돼지고기·소고기 등을 최대 64% 할인 특가에 선보인다.

이번 기획전은 고물가로 인해 높아진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국내산 돼지고기·소고기를 비롯해 수입산 돼지고기·소고기, 닭고기, 양고기, 양념육 등 정육 전 카테고리에서 400여개가 넘는 다양한 상품들을 특별 할인가에 제공한다. 와우회원은 로켓프레시로 새벽배송을 받을 수 있다.

대표적으로 △한돈 삼겹살을 100g 당 1990원으로 1천원대에 선보인다. △미국산 삼겹살도 100g 당 1390원 △미국산 소갈비살은 100g 당 3000원대에 만날 수 있다.

△한우 1등급 등심은 오는 30일까지 단 3일간 100g 당 6495원에 내놓는다. 이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공시된 서울 지역 3월27일 기준 소비자가격(대형마트) 1만2086원 대비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. 일부 대표상품 가격은 행사카드 결제 시 10% 추가 할인 적용 기준이다.

쿠팡의 대규모 350여톤 정육 매입은 내수 불황과 수요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.

쿠팡 로켓프레시와 지난 2021년부터 협력 중인 김용우 대전충남양돈농협 계장은 “쿠팡이 많은 양의 돼지고기를 매입하면서 대전

및 충남 지역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"며 "최근 유통채널 납품이 불안해지는 위기 상황 속 쿠팡은 믿고 가는 든든한 동반자"라고 말했다.

쿠팡 관계자는 "고물가에 지친 고객들이 신선한 축산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"며 "쿠팡 로켓프레시에서 더 많은 고객이 부담 없이 장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